

광주 軍비행장 이전 해법 국회서 풀릴까

민주, 특위구성 추진 대책 공론화 김동철 의원 “여당도 필요성 공감”

민주당이 광주와 수원·대구 등 군 공항의 이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시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박지인 원내대표를 설득, 국회 내 군 공항 이전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에서도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어 올부터 국회 차원에서 군 공항 이전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말 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를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12월8일 예산안 날치기 처리

로 여야 관계가 얼어붙어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이 그동안 군 공항 이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성남 군 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도 도심항공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국회 내 논의 필요성에 대해 “군 공항 이전은 정부가 국회

사업으로 추진해야 관련 부처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전 대상지의 반발 최소화 및 공감대 확보가 가능한데 정부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전 국가 차원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군 공항 이전 대상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국회 내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또 나아가 구성되더라도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 군(軍)은 연평도 포격 직후부터 도라 전망대 출입을 제한해 오다가 이날 다시 관람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최저생계비 작년보다 5.6% 인상

광주시가 올해 최저생계비를 지난해보다 5.6%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난해 대비 5.6% 인상된 1인가구 53만2583원, 2인가구 90만6830원, 4인가구 143만9413원으로 늘어난다. 광주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1612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희망리본 프로젝트 광주시 시범사업지로

광주시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시범사업지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광주시와 대구시, 강원도를 희망리본 프로젝트 시범사업지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지는 부산, 인천, 경기,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참여자도 5200명에서 9200명으로 늘어났다.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종합 서비스로, 대상자는 자녀나 간병 등 여건이 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美쇠고기 수입 의도” “남파간첩 회생방 공격”... 황당한 구제역 피담 급속 확산

“엄동설한 방역 사투 벌이는데...” 당국 허탈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고 10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를 살 처분했음에도 병마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사비만 공안에 황당한 피담과 음모론이 급속히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구제역이 한달 보름이 넘도록 기승을 부리자 일부 누리꾼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늘리려고 허술하게 방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해 한파 속에 구제역 박멸에 악전고투하는 방역 당국의 힘을 빼고 있다.

11일 각종 포털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을 둘러본 결과 ‘라* * *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아마 의도적으로 방역을 허술하게 하고 병을 퍼뜨려 소와 돼지들을 많이 죽일 생각인가보다. 특히 쇠고기 공급부족은 미국 소로 메우려는 게 아닐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구제역이 창궐하기 시작한 시점과 한미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시점이 겹친다는 점에서 누리꾼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괴소문을 그럴듯하다며 받아들이고 있다. 구제역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음을 들어 누군가 일부러 구제역을 옮기고 있다는 음모론도 대두하고 있다. 음모론은 미국 축산업계가 비행기를 동원해 한국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살포했다는 괴소문에서부터 남파 간첩의 회생방 공격설까지 다양하다. 이밖에 살처분된 소와 돼지의 원혼이 저주를 내려 구제역이 잡히지 않는다는 괴담과 4대강 사업으로 갈물이 오염돼 구제역이 창궐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연합뉴스

의원 해외 순방 외교? 외유?

동절기를 맞아 국회의원들의 중남미행이 줄을 잇고 있다. 의원외교 차원의 방문활동이지만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부터 24일까지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등 3개국을 순방한다. 또 한·브라질, 한·파라과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5일부터

15일까지 각각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방문하며 한·엘살바도르·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15일부터 23일까지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를 찾는다. 이들 의원의 방문은 제각기 활동목적과 명분을 띠고 있지만 중남미로 지나치게 몰림현상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지 공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휴가시

즌이어서 현지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외교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외교가에서는 ‘여름엔 북유럽, 겨울엔 중남미’라는 조어까지 나돌고 있다. 의원들이 여름에는 서늘한 북유럽 국가를 주로 순방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중남미 국가를 순방하는게 공식처럼 돼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여름 북유럽·겨울 중남미행 몰림 현상에 현지공관 부담

北 연평도 도발 시인?

노동신문 “평화협정 응했으면 포격 없었을 것” 논평

북한이 자신들의 평화협정 제안을 미국 등 당사국들이 계속 외면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는 뒤임의 언급을 내놓고 주목된다.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현 사태 타개의 근본원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면서 “지난해 유관측들이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호응했으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평은 또 “현 시기 조선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선결은 조미(북미) 신뢰를 도모하는 것이고, 신뢰를 구축

하자면 조미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한다”면서 “그 선행공정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적대 입장을 버리고 조미 군사적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더 추동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6자회담 등 북한과 대화 재개에 앞서 비핵화 조치, 남북관계 진전 등 북한의 긍정적인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물가 불안품목 전면조사

공정위, 가격 담합 등

공정위 고위관계자들은 11일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창설된 이후 물가 및 가격 관련 조사로는 최대규모일 것”이라며 “품목수는 물론 조사대상 기업의 숫자도 가장 많은 규모이며 조사반원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물가안정 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감시국·카드발조사국·소비자정책국 등이 참여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주도하는 것으로 내달 설 이전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들은 11일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창설된 이후 물가 및 가격 관련 조사로는 최대규모일 것”이라며 “품목수는 물론 조사대상 기업의 숫자도 가장 많은 규모이며 조사반원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물가안정 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감시국·카드발조사국·소비자정책국 등이 참여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주도하는 것으로 내달 설 이전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하는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은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원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영,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언어(최복수)외 2명
영어(신경찬)외 2명
수학(주석진)외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since 1985.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0기) 1월 21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매주1회 3시간 /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정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 중의계(5년), 졸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